

胎熱에 관한 文獻的 考察

金英信* · 金德坤**

I. 緒 論

胎熱이란 어린애가 태 안에서 받은 열이 출생후에도 있는 병증을 말하고³⁰⁾ 흔히 일반적으로는 出生後 2~5개월 부터 1年 사이에 頭部 또는 面部에 濕疹이 생겨 가려우면서 진물이 흘러 보기에 흉한 皮膚疾患을 말한다.²³⁾ 洪³¹⁾은 搔痒感이甚해서 嬰兒에 있어서 이처럼 가려워서 보채게 하는 피부질환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本症은 보통 뉘이나 두뉘까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수가 많다고 하지만³¹⁾ 그렇다고 없어질 때 까지 放置해 두어도 무방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本症의 重症難治는 適切할 治療를 하지 않고 放置해 둔 患兒에 많고²⁷⁾ 二次의 細菌感染을 併發하여 膿痂疹狀態를 나타내기 쉽다.²⁶⁾ 또 여기에는 아토피 素因에서 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에서는 아토피性 皮膚炎에 移行하면서 50%가 나중에 hay fever를 일으키며 20%가 喘息을 發症하게 된다.²⁷⁾ 이에 本人은 臨床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얻으려고 胎熱에 대하여 韓方醫學의 文獻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活幼心書¹⁹⁾

· 嬰兒生下 三朝旬月之間 目閉而赤 眼胞浮腫 常作呻吟 或啼叫不已 時復驚煩 徧體壯熱 小便黃色.

· 此因在胎 母受時氣邪毒 或外感風熱 誤服湯劑 或食五辛薑麵過多 致令熱蘊於內 熏蒸胎氣 生下故有此證 名曰胎熱

· 所謂胎熱即多驚 若經久不治則鵝口 重舌 木舌 赤紫丹瘤. 自此而生

· 先以木通散煎與母服 使入於乳 兒飲之 通心氣解煩熱然後 以四聖散溫洗兩目 目開進地黃膏 天竺黃散 及牛蒡湯 當歸散 亦令母服 使從乳過 是一助也

· 乳母宜忌雞酒羊麵庶得易安 不致反復

· 三朝旬外月間兒 目閉胞浮證可推 常作呻吟煩躁起 此爲胎熱

2. 普濟方²¹⁾

· 小兒受胎 因母受熱 或認食酒麵熱毒之物 傳入胎中 令兒生下面赤 眼閉不開 身體壯熱 哭聲不止 口熱如湯 乃爲胎熱之候.

* 서울 도곡韓醫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 凡胎熱證 當令乳母服藥不可求速效也
- 治法當以酸乳 令兒吃 漸次解之 百無一失
- 若遽以冷藥攻之 必損脾胃 加以嘔吐 乃成大患

地黃湯：治在胎受母熱毒 生下遍身面目俱黃 身熱大便秘 小便黃色 多啼不乳

解胎熱釀乳方：解胎中受熱 生下面赤眼閉 大小便不通不食乳

黃連散：由洗兒洗目不淨 穢汁浸漬 或在胎母食熱物熱藥 令兒目赤爛

· 夫胎熱伏心啼者 由母妊娠之時恣食辛酸 多味炙博 厚衣焙服 熱氣熏蒸 觸入胎中 致五味毒熱伏於經 令兒恍惚 風邪暴傷 令兒驚啼 面赤唇紅 時時啼叫 是胎熱伏心故也。

導赤散：治小兒燥啼 面赤 小便亦赤 口中熱 腹上亦熱 或有汗仰身而啼 至曉方息

猪苓湯：治邪熱在心 本臟屬火 復為熱所乘 故炎上焦哭 其證面紅 小便赤 口氣熱 啼時時有汗 仰身而啼 煩燥畏燈火

3. 萬氏片玉心書（醫部全錄）²²⁾

有胎毒所生者 如蟲疥流丹 浸淫濕瘡 癰癤結核 重舌 木舌 鵝口 口瘡 與夫胎熱 胎寒 胎黃胎驚之類

4. 保嬰全書⁹⁾

小兒胎症謂 胎熱 胎寒 胎黃 胎肥 胎弱是也 胎熱者初生旬日之間目閉色赤眼胞腫啼叫驚煩壯熱 溺黃

此在胎中受熱及膏梁內蘊

宜用清胃散之類

5. 古今醫統秘方大全⁸⁾

· 巢氏曰 小兒在胎 母食熱毒之物 或熱藥

令兒生下 身熱面赤 眼閉口熱 痰盛喘急 大便不通 小便赤澀

· 多因胎中受熱 或因誤服溫劑 致令熱蓄於內 蒸胎氣 固有此證

· 若久而不治 則鵝口 重舌 紫赤丹瘤 急驚風 搐 皆由此而生也

· 小兒初生有胎熱證者 宜先以 木通散煎與母服 使通於乳令兒飲之 通心氣解煩熱

· 不可求速效 乳母服藥 漸次解熱 百無一失 節以涼藥 攻之必致嘔吐也 變生大患 乳母仍忌 辛辣酒麵厚味 庶易得安

6. 醫學入門¹⁶⁾

胎毒類 初生 胎熱胎寒 胎瘦肥

胎熱因 因母食熱

7. 六科準繩（兒科）¹⁴⁾

· 兒在胎中母多驚悸或因食熱毒之物

· 降生之後旬日之間 兒多虛痰氣急喘滿眼閉目赤 目胞浮腫神困呵欠呢呢作聲遍體壯熱小便赤色大便不通時復驚煩

· 此因胎中受熱或誤服溫劑致令熱蓄於內蒸胎氣故

· 有此證若經久不治則鵝口重舌木舌赤紫丹瘤自 此生

· 宜先以木通散煎與母服使入於乳令兒飲之通心 氣解煩熱然後以 四聖散 溫洗兩目目開進 地黃膏 天竺黃散及牛蒡湯當歸散 亦令母服

· 凡有胎疾不可求速效當先令乳母服藥 使藥過 乳漸次解之百無一失

· 若即以涼藥攻之必生他病 乳母仍忌辛辣酒麵 庶易得安不致反覆

生地黃湯：治小兒在胎時因母有熱 或 恣食 酒麵熱毒之物 傳於胎中

令兒生下面赤眼閉身體壯熱哭聲不止 口熱如湯 乃胎熱之候也

木通散：主小兒上膈熱小府閉諸瘡丹毒母子同服

四聖散：主芽兒胎受熱毒生下兩目不開

甘豆湯，地黃膏：治胎熱

8. 東醫寶鑑⁴⁾

·胎熱者 胎中受熱 生下而面赤眼閉大便秘 小便赤黃不吸乳

·宜用生地黃湯 及釀乳方

生地黃湯(生地黃 赤芍藥 川芎 當歸 瓜蒌根)

釀乳方(澤瀉 生地黃 豬苓 赤茯苓 茵陳 天花分 甘草)

9. 壽世保元⁷⁾

·胎熱 因母孕時 食熱毒之物過多

·令兒生下身熱面赤 眼閉 口中氣 熱焦 啼燥渴 或大小便不通

·法當漸解熱 先令乳母服藥 兒服乳即解

·決不可速效 以涼藥攻之 必致嘔吐而成大患也 慎之 慎之 釀乳方

10. 方賢奇效良方²³⁾

·小兒胎熱者 但看初生下肌膚紅白 二月已後遍身黃腫 眼閉不開 作呻吟聲

·此因胎內有熱 或因母服熱藥所致 亦謂之血疽

·治之以辰砂金箔散 牛黃膏 乳上吮之 兼以黃蘗皮煎湯 浴之此良法也

11. 幼科三種(幼科鐵鏡)²⁵⁾

胎熱者 通面大紅 紅雖赤子本色 恐人不能辨益 本色紅而淡 淡而正 熱色 深紅而燥而色雜如滿口熱氣奔騰 或面腫而紅紫口氣蒸手 或大便閉結 小便短赤目內紅赤亦皆胎熱也

如牙齦腫硬不能吸乳用銀簪於牙上下合骨刺破出血而乳自能吸隨用連翹一錢 伏龍肝二錢 車前子一錢 煎服或用大連翹飲

此症由娠母喜睡火炕好食煎炒所致

12. 張氏醫通¹⁷⁾

小兒胎證 謂胎熱 胎寒 胎黃 胎肥 胎弱是也 胎熱者 生下有血色 旬日之間 目閉面赤 眼胞腫啼叫 驚煩壯熱溺黃 大便色黃 急欲食乳

此在胎中受熱 及膏粱內蘊

宜用清胃散之類

13. 幼幼集成²⁴⁾

·胎熱者 母娠時曾食辛熱炙燂之物 或患熱病失于清解 使兒受之

·生後口閉面赤 眼胞浮腫 驚身呢呢作聲 或啼叫驚煩遍身壯熱 小便黃澀 此胎熱也

·若不早治 則丹瘤疱痛 由此而至

·宜集成沈瀼丹 徐服解之 以平為度

14. 幼科釋謎¹²⁾

·何謂胎熱 兒在胎中 母多驚恐 或食熱毒物

·生後旬日間 兒多虛痰 氣急喘滿 眼閉目赤 目胞浮腫 神困呵欠 吸吸作聲 遍身壯熱 小便赤 大便秘 時驚煩

·由胎中受熱 或誤服溫劑 致令熱畜于內 熏蒸胎氣 故有此症

·不早治 則鵝口 重舌 木舌 赤紫丹瘤 自此而生

·母宜先服 木通散 亦與先服 次以四聖散溫洗兒兩目 目開 進地黃膏 天竺黃散 當歸散 牛蒡湯 亦同母服

·凡有胎病 當先令母服藥 使藥過乳 漸次解之 百無一失 如以涼藥攻之 必生他病 乳母尤忌口

15. 濟衆新篇¹⁾

胎熱眼閉 二便閉不乳多啼 釀乳方

16. 丁茶山小兒科秘方³⁾

初生胎熱 初生後 胎熱 面赤 眼閉 大小便

閉塞及不乳 多啼等症을 呈하는데에는 左記方藥을 用(生地黃 茵陳 麥門冬 澤瀉 鐵面朱砂)

—壽世保元— 7)

釀乳方：(內容上同 去 梔子)

—張氏醫通— 17) 保嬰全書— 9)

17. 小兒藥證直訣 18)

生下有血氣時叫哭身壯熱如淡茶色目赤小便赤黃糞稠急食乳

清胃散：

—濟衆新篇— 1)

浴體法主之 更別父母肥瘦肥不可生瘦瘦不可生肥也

釀乳方：澤瀉五分 生地四分 猪苓 赤茯苓 天花粉 茵陳 甘草二分

萬氏片五心書(胎毒) 22)

—普濟方— 21)

地黃湯：赤芍藥 川芎 當歸 天花粉 猪苓 赤茯苓 澤瀉 甘草 山茵陳 各等分

有胎毒所生者 如蟲疥流丹 深淫濕瘡 癰腫結核 重舌 木舌 鵝口 口瘡 與夫胎熱胎寒 胎黃胎驚之類

釀乳方：澤瀉二兩半 猪苓 赤茯苓 天花粉一兩半 生乾地黃二兩 山茵陳 甘草一兩

幼科三種(胎毒) 25)

黃連散：杏仁 黃連 黃栢 當歸 赤芍藥 等分

初生小兒病症許多名狀不同 馬牙驚口與臍風重舌木舌腫痛啼哭夜間不已丹毒 心火上攻又未曾滿月病多山好似風前燭弄

導赤散：生地黃 木通 甘草

夫胎毒者乃自毒中受母熱血

猪苓湯

吳氏兒科學(胎毒) 13)

—古今醫統秘方大全— 8)

木通湯：木通 薏豆五錢 大黃 赤茯苓 甘草三錢 瞿麥 滑石 山梔子 車前 黃芩一錢

小兒生下後 頭上生瘡 或如乾癬 或膿水淋漓 或結靨成片 謂之胎毒

釀乳法：猪苓 澤瀉 赤茯苓 天花粉 茵陳 生甘草 生地黃 山梔 等分

此證多由稟受胎熱 或慾火之毒 或飲食之毒所致

嬰童類萃(胎毒) 15)

甘豆湯：甘草一錢 黑豆二錢 淡竹葉十片

所以生下而生重舌 木舌 鵝口 疳瘡 蟹唇 並諸風瘡 疥癬 赤遊丹毒種種胎毒

四聖散：燈心 黃連 桑皮 木賊

丁茶山小兒科秘方(胎毒) 3)

地黃膏：山梔子 薏豆粉半兩 粉草六錢

胎毒은 卽胎毒瘡瘍이니 小兒의 稟受胎熱 或은 乳母飲食의 毒七情之火의 所致로 兩耳眉梢 或은 耳前後髮際·額·頰兩脇及四肢等處에 瘡瘍을 發하여 처음에는 乾癬와 같다가 나중에는 膿水淋漓 或은 結靨成片케 되는 것

—六科準繩— 14)

生地黃湯：生地黃 赤芍藥 川芎 當歸 括蕪根等分

太平聖惠方(乳癬) 11)

木通散：(內容上同)

夫小兒癬者 由風邪與血氣 相搏於皮膚之間不散 變生癩疹 上如粟粒大 作匡廓 或斜或圓 侵淫長大 痒痛 搔之有汁名爲癬

釀乳法：(")

甘豆法：(")

地黃膏：(")

四聖散：(" 加 棗子)

—東醫寶鑑— 4)

生地黃湯：(內容上同)

小兒面上生癬 皮如甲錯起 乾燥 謂之乳癬 言兒飲乳 乳汁漬汚兒面 變生化 仍以乳汁洗之便差也

釀乳方：(內容上同 去 梔子)

聖濟總錄(爛癬)²⁰⁾ 普濟方(奶癬)²¹⁾

論曰 小兒體有風熱脾肺不利 或濕邪搏於皮膚壅滯血氣皮膚頑厚則變諸癬或斜或圓漸漸長大得寒則稍減暖則痒悶搔之即黃汁出

又或在面上皮如甲錯乾燥謂之爛

此由飲乳乳汁漬著乃生復以乳汁洗之即差

瘍醫大全(奶癬瘡)⁶⁾

· 兒在胎中母食五辛喜殮炙燂遺熱

與兒生後頭面遍身發為 奶癬流脂成片腫臥不安搔癢不絕

· 小兒初生奶癬類乎癩初起手足次延腹背纏綿不已

· 此症初生頭頂或生眉端癢起白屑形如疥癬

由胎中血熱落草受風纏綿此即乾癬瘡有誤用湯

大洗皮膚起粟搔癢無度黃水津淫延及遍身即成濕癬瘡

中醫兒科疾病新析(嬰兒濕疹 奶癬)⁵⁾

· 巢氏云 癬病由風邪侵入皮間 變成隱疹 疹上如粟粉大 作眶郭 或斜或圓 漸漸長大 癢痛 搔之有汁 名之為癬

· 小兒面上癢 皮如甲錯起 乾燥 謂之奶癬

言兒飲乳 乳汁漬汚見面而生 此仍以乳汁洗之便差 按以上所述 乃為常見之乳兒濕疹

巢氏以為外物刺戟面部 即乳汁漬汚所致 後來醫家多歸之干胎毒 此種解釋不及巢氏遠甚

中醫兒科學(奶癬·嬰兒濕疹)¹⁰⁾

奶癬 又名胎癬瘡 現代醫學稱嬰兒濕疹)¹⁰⁾

常見干一個月至一歲以內的哺乳嬰兒 尤以百日之內的嬰孩 更為多見 故稱奶癬 瘡疹好發于頭額及眉間是本病的主要特點

由于孕母恣食五辛炙燂動火之物過度 熱蘊于血分 遺于胎兒 出生以後 外受風邪 風與血搏 氣與熱結 發于肌膚而成

· 乳兒濕疹(醫學大辭典)²⁶⁾

乳兒기에 생기는 濕疹의 總稱이며 乳兒顔面頭部 急性濕疹(乳兒濕潤性濕疹), 乳兒脂漏性

濕疹, 아토피性皮膚炎이 乳兒期등이 포함된다. 이들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乳兒顔面頭部急性濕疹인데 먼저 頰部가 潮紅하여 가렵고 漿液性丘疹 小水疱가 생겨 摩擦 搔破에 의해 미란 濕潤 結痂하여 鼻口圍以外的 顔面全體에 波及한다. 同時에 被髮頭部에도 같은 병변이 수반될때가 많고 이것들은 二次細菌感染을 併發하여 膿痂疹樣狀態를 형성하기 쉽다. 乳兒脂漏性濕疹은 前頭 및 頭頂部에 汚黃色鱗屑의 附着하는 脂漏부터 시작하여 前額 眉毛部 鼻翼으로 波及하여 黃色 약간 濕性鱗屑이 附着하여 剝離하면 潮紅面이 나타나 濕潤하지 않고 乾燥性이다.

아토피性皮膚炎의 乳兒期는 乳兒顔面頭部急性濕疹과 유사하지만 經過가 길고 全身에 擴大하는 傾向이 强하다.

註 小兒濕疹(今日の 小兒治療指針)²⁷⁾

乳兒期~幼小兒期 아토피性皮膚炎의 通稱이 「乳兒濕疹」 「小兒濕疹」이다. 生後3~6 月에 發病할때가 많고 먼저 顔面·頭部에 急性型의 濕疹(紅斑, 丘疹, 漿液性丘疹, 痂皮 등)이 생겨 차차 全身에 擴大해나간다. 幼小兒期가 되면 乾燥·肥厚한 苔癬化病巢이 四肢屈曲部 頸部등에 好發한다.

· 乳兒 및 幼兒 胎熱 胎毒<頭面濕疹>(韓方臨床學)²⁾

出生後 5 개월부터 1 年 사이에 頭部 또는 面部에 濕疹이 생겨 가려우면서 진물이 흘러 보기에 흉한 濕疹이 생긴다. 이 濕疹을 韓方에서는 胎熱 胎毒으로 일어나는 濕疹이라 한다. 원인은 한방에서는 妊娠中 風濕熱을 助長하는 飲食物을 가리지 않고 마구먹어 발생한다고 한다.

· 아토피性皮膚炎(小兒科學)²⁸⁾

乳兒에서는 얼굴과 四肢伸側에 年長兒에서는

關節屈側に 苔癬化를 수반하여 好發하는 심한 가려움을 가진 慢性皮膚炎 本症의 皮疹을 年齡과 함께 變化하는것이 特徵이다. 즉 乳兒에서는 顔面에 好發하여 濕潤하는 傾向이 있지만 加齡과 함께 四肢關節屈側으로 移行하여 乾燥・苔癬化傾向을 나타내 가렵다. 皮膚全體가 乾燥하여 이른바 아토피性皮膚를 나타낸다.

・아토피性皮膚炎(今日の診斷指針)²⁸⁾

아토피素因을 基盤으로하여 이것에 各種刺戟이 加해져서 發症한다고 하지만 아직 不明點이 많다.

이것을 診斷할때는 우선 皮膚에 볼 수 있는 臨床症狀의 特徵이 重視되어있다. 즉 本症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他覺的 症狀이 變化하여 同時に 病變의 好發部位도 移動한다.

① 搔癢感이 甚하다. 가려움이 없는 아토피性皮膚炎은 있을 수 없다.

② 乳兒期 顔面을 中心으로 兩頰部 耳介部 등에 對稱的 皮疹形成

③ 幼兒期 皮疹은 차차 軀幹 四肢쪽으로 눈에 띄게 된다. 물론 顔面의 皮疹이 消失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약간 가벼워진다.

④ 幼兒期以後 間擦部(皮膚가 서로 맞는部分) 關節屈面이 항상 他部位에 비하여 甚하다.

・Infantile Eczema (Atopic Dermatitis)³¹⁾

이것은 대개 生後 2個月以後에 나타나 두이나 두툼까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수가 많다. 어린 아이는 몹시 가려워하며 몸을 포함해서 嬰兒에게 이같이 가려워서 보체게 하는 피부 질환은 없을 것이다. 小兒의 1~3%에서 볼 수 있다. 嬰兒濕疹을 앓은 小兒의 50%가 나중에 hay fever를 일으키며 20%가 喘息을 일으킨다.

III. 考 察

胎熱은 어린애가 태안에서 받은 열이 출생 후에도 남아있어서 생기는 병증이라고 定義할 수 있고³⁰⁾ 일반적 일상생활에서 쓰는 胎熱이란 말은 出生後 2~5個月부터 1年 사이에 頭部 또는 面部에 濕疹이 생겨 가려우면서도 진물이 흘러 보기에 흉한 皮膚疾患을 말한다.²⁾³¹⁾

胎熱의 症狀에 대하여 曹¹⁹⁾는 嬰兒가 生下 三朝旬月之間에 目閉而赤하여 眼胞浮腫하고 常作呻吟하거나 啼叫不已하면서 驚煩을 反復하여 偏身壯熱하면서 小便이 黃色하다고 하였다.

朱²¹⁾는 小兒가 生下面赤하여 眼閉不開하고 身體壯熱하고 哭聲不止하면서 口熱如湯함을 胎熱의 候라고 하였다. 薛⁹⁾도 初生旬日之間에 目閉色赤 眼胞腫 啼叫 驚煩 壯熱 溺黃이라고 曹와 비슷하게 말하였다. 徐⁸⁾는 令兒生下 然後에 身熱面赤 眼閉口熱 小便赤澀 以外에 痰盛喘急 大便不通을 말함으로써 喘息樣症狀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王¹⁴⁾은 降生之後 旬日之間에 小兒가 多虛하여 痰氣急喘 眼閉目赤 目胞浮腫 神困阿欠呢呢作聲 偏體壯熱하여 小便赤色 大便不通 時復驚煩이라고 하여 앞에서 말한 名家의 說明을 總合해서 말하였다.

許⁴⁾ 龔⁷⁾은 各各 앞에서 말한 名家의 說明을 反復함에 그쳤고 方²³⁾은 看初生下 肌膚紅白 二月已後 偏身黃腫 眼閉不開 作呻吟聲이라고 말하며 皮膚色의 紅白한 狀態 나중에는 身體가 黃腫이 되고 黃疸과 유사한 症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以後의 夏²⁵⁾ 張¹⁷⁾ 陳²⁴⁾ 沈¹²⁾ 康¹⁾들은 이미 나온 症狀을 反復함에 지나지 않았다.

原因을 보면 曹¹⁹⁾는 母在胎時에 時氣邪毒을 受하거나 外感風熱을 받고 또는 溫劑를 誤

服하여 或은 五辛薑麵을 過多攝取함으로써 그 熱이 內蘊되면서 胎氣를 薰蒸하는 故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였고 朱²¹⁾는 小兒受胎하여 受熱하거나 酒麵熱毒之物을 恣食하여 그것이 傳入胎中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또 薛⁹⁾ 張¹²⁾은 在胎中에 受熱하여 膏粱內蘊함으로써 생긴다고 하였고 徐⁸⁾는 小兒在胎時에 母食熱毒之物하여 受熱하거나 誤服溫劑하여 그 熱이 內蓄하여 胎氣를 薰해서 생긴다고 하였다. 王¹⁴⁾은 徐⁸⁾와 거의 같이 말하였고 許⁴⁾는 胎中受熱하여 龔⁷⁾은 母孕時에 熱毒之物을 過食하여 方²³⁾은 胎內有熱하여 或은 母服熱藥하여 胎熱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 陳²⁴⁾은 母親이 妊娠中에 辛熱炙燻之物을 會食하거나 熱病을 앓은 者가 淸解熱에 失敗하여 그것이 使兒受之하여 생긴다고 하였고 沈¹²⁾은 兒在胎中에 母親이 자주 驚恐하거나 熱毒物을 食하여 생긴다고 하여 熱病이나 驚恐에서도 胎熱이 생김을 알 수 있다.

治療方法에 있어서 朱²¹⁾는 乳母한테 服藥을 시켜 母乳를 通하여 令兒吃시키면 漸次 好轉되니 百無一失하다고 하여 速效를 기대하여 冷藥으로 攻之하면 반드시 脾胃損傷하여 嘔吐하게 되어 成大患한다고 하였고 徐⁸⁾도 朱²⁾와 마찬가지로 乳母服藥 漸次解熱을 권하고 涼藥攻之하면 必致嘔吐 變生大患한다고 하여 이것을 禁忌시켰다. 王¹⁴⁾ 龔⁷⁾ 沈¹²⁾ 등도 같은 말을 반복하여 胎熱治療에 있어서 治療方法의 重要함을 알 수 있다.

治方은 曹¹⁹⁾ 王¹⁴⁾ 沈¹²⁾은 木通散 四聖散 地黃膏 天竺黃散 牛蒡湯 當歸散을 使用하였고 朱²¹⁾는 地黃湯 釀乳方 黃連散 導赤散 豬苓湯을 張¹⁷⁾ 薛⁹⁾은 淸胃散之類를 使用하였다. 徐⁸⁾는 木通散 許⁴⁾는 生地黃湯 釀乳方 龔⁷⁾ 康¹⁾은 釀乳方을 各各 使用하였다. 이

상에서 治方으로는 대체로 木通散 釀乳方 生地黃湯등 利水淸熱之劑로 쓰고 그 다음에 四聖散등 外用藥을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曹 ¹⁹⁾ 王 ¹⁴⁾	木通散 四聖散 地黃膏 天竺黃散
沈 ¹²⁾	牛蒡湯 當歸散
朱 ²¹⁾	地黃湯 釀乳方 黃連散 導赤散 豬苓湯
張 ¹⁷⁾ 薛 ⁹⁾	淸胃湯之類
徐 ⁸⁾	木通散
許 ⁴⁾	生地黃湯 釀乳方
龔 ⁷⁾ 康 ¹⁾	釀乳方

胎熱의 豫後에 대하여 曹¹⁹⁾ 王¹⁴⁾은 만약 經久不治하면 鵝口 重舌 木舌 赤紫丹瘤등이 스스로 발생한다고 하였고 徐⁸⁾는 若久而不治하면 鵝口 重舌 紫赤丹瘤와 함께 急驚風搖까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 陳²⁴⁾은 若不早治하면 丹瘤瘡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萬²²⁾이 胎毒所生을 如蟲疥流丹 浸淫濕瘡 癰癤結核 重舌 木舌 鵝口 口瘡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서 胎毒과 유사한 증세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胎熱이 不早治하여 甚해지면 胎毒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比較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西洋醫學의으로 乳兒濕疹에 대하여 乳兒期~ 幼小兒期の 아토피性皮膚炎의 通稱이 「乳兒濕疹」이라고도 하지만²⁷⁾ 乳兒期에 생기는 濕疹의 總稱을 乳兒濕疹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 같다.²⁶⁾ 여기에는 乳兒顔面部急性濕疹, 乳兒脂漏性濕疹, 아토피性皮膚炎의 乳兒期型등이 包含되어 있다. 여기서 제일 많은 것은 乳兒顔面部急性濕疹인데 이것은 먼저 頰部가 潮紅하여 가렵고 漿液性丘疹 小水疱가 생겨 摩擦 搔破에 의해 미란 濕潤 紅痂하여 鼻

口圍以外的 顔面全體에 波及된다. 乳兒脂漏性濕疹은 前頭 및 頭頂部에 汚黃色鱗屑이 附着하는 脂漏부터 시작하여 前額 眉毛部 鼻翼으로 波及하여 黃色의 약간 濕性鱗屑이 附着하여 剝離하면 潮紅面이 나타나 濕潤하지 않고 乾燥性이다. 아토피性皮膚炎의 乳兒期는 乳兒顔面部急性濕疹과 유사하고 먼저 顔面頭部에 急性型的 濕疹(紅斑, 丘疹, 漿液性丘疹, 痂皮 등)이 생겨 濕潤傾向이 있지만 加齡과 함께 四肢 關節屈側으로 移行하면서 乾燥 苔癬化傾向을 나타내 皮膚全體가 乾燥하여 이른바 아토피性皮膚를 나타낸다. 즉 乳兒濕疹에서 乳兒顔面頭部急性濕疹과 아토피性皮膚炎의 乳兒期는 鑑別이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아토피性皮膚炎은 經過가 길고 아토피性皮膚炎의 定型으로 移行해 나감으로써 鑑別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韓方的으로는 胎熱에 대한 各家의 說이 거의 비슷하고 異口同言임을 알 수 있고 西洋醫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疾患의 一部에 아토피素因 즉 allergy로 오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胎熱과 allergy 등 體質과의 關係에 正確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結 論

胎熱에 대하여 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胎熱은 西洋醫學에서는 乳兒濕疹이 가장 類似하며 이것에는 乳兒顔面頭部急性濕疹, 乳兒脂漏性濕疹, 아토피性皮膚炎의 乳兒期型등이 包含된다.

2. 胎熱의 原因은 母孕時에 時氣邪毒이나 外感風熱을 受하고 또는 五辛酒麵熱毒之物을 恣食

하거나 誤服溫劑하여 體內에 熱毒이 蓄積되어 그것이 傳入胎中하여 發生한다.

3. 胎熱의 症狀은 生下面赤 眼閉不開 目胞浮腫 偏體壯熱 哭聲不止 口熱如湯 痰氣喘急 小便黃色 大便不通 등이 있다.

4. 胎熱의 治療方法은 먼저 乳母한테 服藥시켜 母乳를 通하여 乳兒飲之시킴으로써 漸次解之를 기대하여야 하며 速效를 기대하며 冷藥으로 攻之하면 必致嘔吐하여 變生大患한다.

5. 胎熱의 豫後는 若久而不治하면 鵝口 重舌 木舌 赤紫丹瘤 急驚風搖 등 胎毒에서 볼 수 있는 病들이 發生한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衆新篇 杏林書院 서울 1975, p.276.
2. 裴元植: 漢方臨床學 南山堂 서울 1986, p.786.
3. 丁若鏞: 丁茶山小兒科秘方 杏林書院 서울 1970, p.10, pp.43-44.
4.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1, p.648.
5. 高鏡明: 中醫兒科疾病新析 萬葉出版社 香港 p.75.
6. 顧世澄: 瘍醫大全 太醫社 서울 1975, pp.760-761.
7. 龔廷賢: 壽世保元 裕昌德書店 서울 1961, p.279.
8. 徐春甫: 古今醫統秘方大全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82, pp.5697-5700.
9. 薛 鑑: 保嬰全書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8, pp.252-356.
10. 成都中醫學院: 中醫兒科學 四川人民出版社

- 四川 1976, pp.239-241.
11. 宋太宗命撰：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1, pp.2911-2913.
 12. 沈金鰲：幼科釋謎 萬葉出版社 香港 p.12.
 13. 吳克潛：吳氏兒科學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7, pp.150-151.
 14. 王肯堂：六科準繩(兒科) 翰成社 서울 1982, pp.85-87.
 15. 王大綸：嬰童類萃 翰成社 서울 1984, pp.68-70.
 16. 李 梴：醫學入門 翰成社 서울 1983, pp.699-721.
 17. 張璐玉：張氏醫通 金藏書局 新竹 1977, p.443.
 18. 錢 乙：小兒藥證直訣 癸丑文化社 서울, 1974.
 19. 曹世榮：活幼心書 大東書局 上海 1933, 卷上(決證詩版) p.8, 卷中(明本論) pp.2-8.
 20. 曹孝忠：聖濟總錄 新文豐出版 臺北 1978, pp.1439-1440.
 21. 朱 橐：普濟方 翰成社 서울 1981, 4卷 pp.103-104, 139-140, p.1395.
 22. 陳蔓雷：醫部全錄(萬氏片玉心書)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9, 17卷 pp.605-606.
 23. 陳蔓雷：醫部全錄(方賢奇效良方)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9, 16卷 p.187.
 24. 陳復正：幼幼集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78, pp.50-55.
 25. 夏 鼎：幼科三種(幼科鐵鏡) 東方圖書公司 臺北 1962, p.82, 143.
 26. 秋谷 忍外：南山堂醫學大辭典 南山堂 東京 1979, p.1562.
 27. 加藤英夫外：今日の小兒治療指針 醫學書院 東京 1985, pp.621-622.
 28. 龜山正邦外：今日の診斷指針 醫學書院 東京 1985 pp.1171-1172.
 29. 小林登外：小兒科學 醫學書院, 東京 1987, pp.401-402.
 30. 李熙昇：國語辭典 民衆書館 서울 1977, p.1562.
 31. 洪彰義：小兒科診療 高麗書籍 서울 1984, p.564.